

백헌기 회장 취임 “새로운 60년 준비”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2023년 시작과 함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협회는 1월 2일 서울 서초구 협회 본부에서 2023년 시무식 및 백헌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백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정기총회에서 재선됐다. 임기는 2025년 말까지 3년이다. 백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경영방침은 ▲새로운 60년 준비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과 발전 ▲ESG경영 구체화 ▲노사화합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등이다.

협회는 경영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사공동 경영발전추진단을 구성했다. 백 회장은 “산업보건 60년 역사의 자부심을 간직한 채 새로운 60년을 위해 다시 한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2023년 시무식 개최



협회는 1월 2일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무식을 열고 새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헌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에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하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낸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지난 한해를 돌아봤다. 이어 “2023년은 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 협회는 산업보건 60년 역사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새로운 60년을 위해 다시 한번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 임직원들에게 하나의 팀(One Team)을 당부하며 노사화합을 강조했다.

협회, 한국노동복지센터 선정 사회공헌상 수상



협회가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선정하는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협회는 한국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사회공헌활동 실천 발표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1월 5일 협회를 방문한 황원래 노동복지센터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노동복지센터는 협회가 2022년에 진행한 진폐노동자 대상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 배달노동자 건강 지키기 구급함 보급 사업, 사랑의 재생PC 나눔, 무료건강검진 등을 우수사례 선정 이유로 들었다. 노동복지센터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사회공헌활동 실천사례 발표회를 열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노사발전재단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한 일터혁신 ‘맞손’



안전보건 분야의 현장밀착형 대국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협회(회장 백헌기)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이 손을 잡았다.
협회와 재단은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사발

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 분야 현장밀착형 대국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산재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사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진단도 함께 한다. 백헌기 회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며 “산업보건 60년 기술을 활용해 일터혁신과 중대재해 감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서울지역본부-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서울 직업병 안심센터 ‘업무협약’ 체결

이상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선임과장



서울지역본부는 1월 12일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에서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서울 직업병 안심센터와 노동자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직업성질병 예방 활동 지원 및 자문 ▲직업성질병 노동자 발굴 후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 연계 ▲사업 업무와 관련한 상호 지원 등 직업성질병 예방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적 운용 및 교류 지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강현지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본부가 직업성질병 예방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